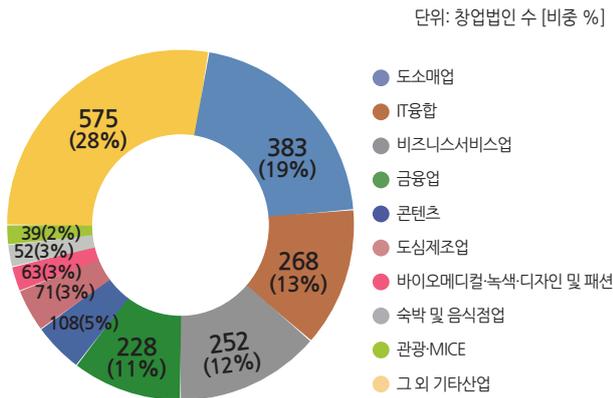


산업별 창업 동향

I 산업별 창업현황

- 2018년 9월 서울에서 창업된 법인 수는 2,039개
- 산업별로는 도소매업 383개, IT융합 268개, 비즈니스서비스업 252개, 금융업 228개, 콘텐츠 108개, 도심제조업 71개, 바이오메디컬·녹색·디자인 및 패션 63개, 숙박 및 음식점업 52개, 관광·MICE 39개, 그 외 기타산업 575개가 창업
- 그 외 기타산업은 주요 9개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176개), 제조업(168개), 건설업(94개) 등이 법인 창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

[그림 1] 2018년 9월 산업별 창업법인 수(비중)



I 법인창업지수 증감률(전년동월 대비)

- 9월 서울 법인창업지수는 83.6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24.3% 감소
- 9월 법인창업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추석 연휴에 따라 법인 등록일수가 감소(4일)한 영향으로 분석되며, 추석 효과를 제거한 일평균 창업법인은 전년 동월에 비해 5.9% 감소에 그친 것으로 조사
- 추석 연휴가 전년도에는 10월에 있었던 반면 올해는 9월에 있으면서 법인 등록 일수가 전년 동월에 비해 4일 감소
- 추석 효과를 제거한 후의 법인 창업 증감을 살펴보기 위해 일평균 창업법인 수를 비교해보면 2017년 9월 일평균 127.4개 법인 창업에서 2018년 9월 일평균 119.9개 법인 창업으로 줄어들어 실제 법인 창업은 전년 동월 대비 5.9% 감소

- 산업별로는 법인 창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소매업(-26.8%), IT융합(-19.8%), 비즈니스서비스업(-22.5%), 금융업(-32.1%) 등 4개 산업을 비롯해 서울의 주요 산업 대부분이 크게 감소
- 4개 산업 외에도 그 외 기타산업(-27.1%), 바이오메디컬·녹색·디자인 및 패션(-16.0%), 관광·MICE(-15.2%), 도심제조업(-11.3%), 콘텐츠업(-9.2%)도 감소
-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금융업(-32.1%)의 경우 구성 업종 중에서 그외 기타 금융업이 급감한 것으로 조사
- 그외 기타 금융업 중에서도 팩토링활동, 말기환금회사, 생명보험판매서비스 등의 법인 창업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도소매업은 구성 업종 중에서 상품 종합 도매업과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등이 크게 감소
-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6.1%)은 주요 산업 중 유일하게 창업이 증가
- 숙박 및 음식점업 중에서도 한식 음식점업이 크게 증가

[표 1] 2018년 9월 산업별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